

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

윤형호 연구위원 · younh@sdi.re.kr*

임석 연구원 · limseok@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I. 최근 서울경제동향

소비관련지표

- 2005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의 대형소매점 및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2006년 1/4분기를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냄
 - 전년동기 대비 서울 백화점의 판매액지수는 2006년 1/4분기에 14.26%,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지수는 2005년 4/4분기에 10/44%였으나, 가계부채부담 및 조세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06년 3/4분기의 증가폭은 각각 5.56%와 3.92%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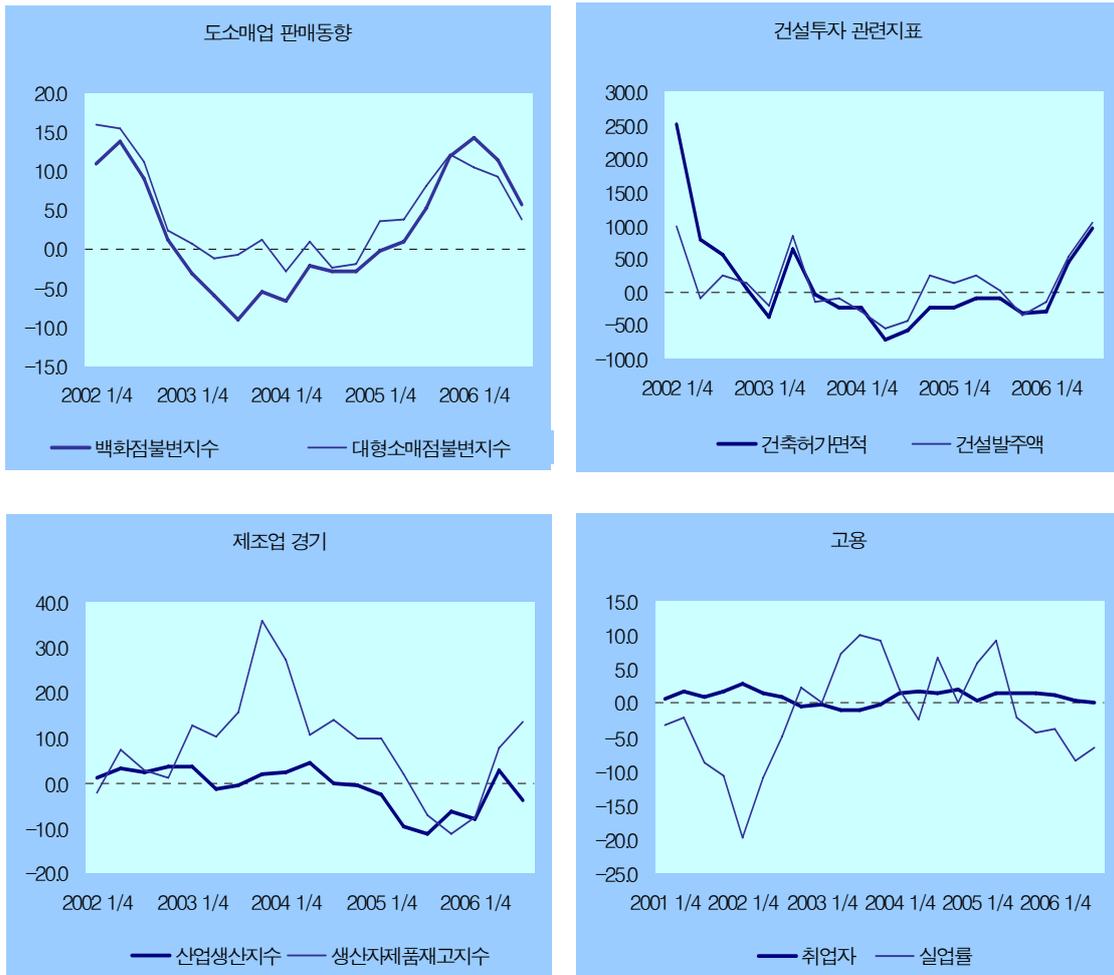
건설투자 관련지표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들은 2005년 1/4분기를 기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오레곤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 “서울시 고령자고용개발체계에 관한 연구”, 2006년 시정개발연구원 기본과제

- 건축허가면적은 2006 1/4분기에 30.3% 감소하였으나, 2006년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45.9%와 95.0% 증가세를 보임
- 건설발주액은 2006년 1/4분기에 14.5% 감소하였으나, 2006년 2/4분기에 54.3%, 3/4분기에 104.0% 증가함



〈그림1〉 서울의 경제지표 동향

제조업경기

- 제조업경기의 경우 감소세가 지속되던 산업생산지수는 2006년 2/4분기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약감소세를 보였고, 재고지수는 2005년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됨

- 2005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산업생산지수는 2006년 2/4에 2.9%까지 증가하였으나 3/4분기에 이르러 다시 3.7% 감소함
- 생산자제품재고지수는 2006년 상반기에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2006년 3/4분기에 13.6% 증가함

고용

- 2006년 1/4분기 이후 서울 취업자수는 약감소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실업률은 200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임
 - 2006년 3/4분기 서울의 취업자수는 0.1% 증가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천 명 정도 취업자가 증가함
 - 실업률은 2006년 3/4분기 4.3%를 나타내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0.3% 가량 감소함
- 서울시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04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2006년 1/4분기 4.5%, 2/4분기 4.8%, 3/4분기 5.5% 감소함
 - 실업률의 경우 2006년 3/4분기 중 8.4%로 서울시 전체 실업률보다 4.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서울 경제지표의 증감율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4/4	1/4	2/4	3/4	4/4	1/4	2/4	3/4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2.0	3.5	4.0	8.1	12.2	10.4	9.4	3.9
	백화점 판매액지수	-2.8	-0.2	1.1	5.3	12.0	14.3	11.4	5.7
건설	건축허가면적	-23.2	-23.0	-8.4	-9.7	-33.1	-30.3	45.9	95.0
	건설발주액	24.1	14.5	23.5	2.8	-36.0	-14.5	54.3	104.0
경기	산업생산지수	-0.6	-2.6	-9.6	-11.4	-6.5	-7.9	2.9	-3.7
	생산자 제품재고지수	9.8	9.8	2.0	-7.2	-11.3	-7.7	7.6	13.6
고용	취업자	2.0	0.5	1.4	1.4	1.6	1.1	0.3	0.2
	실업률	4.7	5.3	4.7	4.6	4.5	5.1	4.3	4.3

주: 지표의 비교시점은 전년동기임. 단, 실업률은 원지수임

II. 한국경제전망

최근 한국경제흐름

- 2006년 하반기 이후 경기하강세 지속
 - 2006년 3/4분기 들어 경제성장률은 수출호조 및 설비투자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율의 둔화로 인해 4%대로 약화됨
- 그 동안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 고유가는 다소 완화된 반면, 원화강세 현상이 재연
 - 두바이유 기준 유가는 지난 8월 8일에 사상최고치(배럴당 72.2달러)를 경신하였으나, 9월 이후 50달러 대에서 안정됨
 - 3/4분기 이래 950원 중반 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이후 930원대로 하락하면서 원화강세가 재연됨
- 또한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
 - 북한이 지난 10월 9일 핵실험 성공 발표 직후 금융시장의 동요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안정된 모습을 유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2007년에도 한국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됨

2007년 한국경제전망

- 경제성장률은 2006년보다 둔화된 약 4%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는 북핵변수로 인한 가계 소비심리 및 기업 투자심리의 악화, 실직소득의 증가세 미흡, 가계부채 및 조세성 지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하여 소득 및 소비증가율 간의 괴리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3~4%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됨
 - 설비투자는 투자압력이 지속되고, 기업부문의 재무구조조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6~7%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정부의 투기억제정책으로 인한 주택경기 부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2007년 하반기 이후 민자사업 확대에 따른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착공 등을 통하여 1% 안팎의 약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는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인 2.6~2.8%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요금 인상폭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안정 등에 힘입어 상승폭의 변화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정학적 위험고조에 따른 환율상승을 통한 물가상승 위험도 내재됨
- 실업률은 2006년보다 소폭 상회한 3.6~3.8%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07년의 성장세 둔화와 아울러 유가, 환율 등의 급변동으로 기업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채용 의지가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07년 경제는 정치 사회적으로 북한 핵문제, 대선결과에 따른 정책 혼선, 노사갈등 심화, 사회갈등과 경제적으로 한미 FTA 협상, 미국경기 둔화, 원화 강세 등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됨

Ⅲ. 서울경제전망

- 서울의 2007년 경제성장률은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가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2006년 1/4분기 이후 하락세에 있으나, 취업자 증가에 따른 실질소득의 증대로 2007년에는 3.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전국의 성장률과는 달리 4대 산업벨트 조성 등 다양한 공공사업의 실시로 8.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의 증대와 서비스업 경기 확대 등으로 인해 서울의 설비투자는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2007년 서울시 경제전망

(단위: 전년대비, %)

구분	서울경제	국내경제				
	SDI	한국은행	KDI	삼성	LG	KERI
경제성장률	4.1	4.4	4.3	4.3	4.2	3.8
민간소비	3.9	4.0	3.8	3.7	3.8	3.3
설비투자	6.0	6.0	7.0	5.7	5.3	5.7
건설투자	8.1	1.6	2.3	0.9	3.0	0.8
고용	1.9	1.2	-	-	-	-
실업률	-	3.6	3.7	3.6	3.6	3.8
소비자물가	-	2.6	2.8	2.8	2.7	2.7

* 서울경제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전망을 기준으로 작성

○ 서울의 2007년 총생산 증가율은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업은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제조업은 0.3%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업은 운수·통신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운수·통신업은 6.0%,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5.4%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비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0%, 전기·가스 수도업은 3.1% 성장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은 의류·섬유업(1.6%)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서울의 고용은 2007년에 1.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업은 2.6% 가량 고용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은 4.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는 4.8% 고용증가율을 나타내어,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운수 및 통신업도 상대적으로 고용창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3〉 2007년 서울시 산업별 생산, 고용 성장률

(단위: 전년대비, %)

구분	생산 증가율	고용 증가율
서울시	3.9	1.9
제조업	0.3	-4.5
의류·섬유	1.6	-2.2
석유·화학·금속	-5.3	-8.1
기계제조업(정보통신, 컴퓨터, 정밀기기 포함)	0.9	-2.7
기타제조(자동차, 음식료 포함)	-3.5	-7.4
서비스업	4.3	2.6
전기·가스·수도	3.1	0.2
건설	3.8	3.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	1.2
운수·통신서비스	6.0	3.7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4	4.8
공공행정 및 교육·사회보장	4.9	2.1

IV. 2007년 서울경제와 정책방향

○ 서울의 2006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세의 유지와 건설투자의 확대 등으로 인해 2006년과 유사한 4.1%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증가세의 유지는 취업자 증가에 이은 실질소득의 증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은 2007년 서울시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 2006년 이후 대규모 공공사업의 증가로 인한 건설투자의 효과가 타 산업으로 파급되어 서울시 경제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서울의 제조업은 주요 제조업 시설의 지방이전 및 해외진출로 말미암아 극심한 생산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제조업 기반 쇠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서울시는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층, 고령층, 경력단절 중년여성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턴쉽과 같은 준고용 기회를 통해 직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서비스산업 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들 사이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선도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영화, 공연예술, 문화컨텐츠 등 문화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함
 - 해외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함
 - 통신업,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적자원 및 연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참고문헌

- 한국은행, 「2007년 경제전망」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 삼성경제연구원, 「2007년 국내경제 전망」
- 한국경제연구원, 「2007년 경제전망」
- LG경제연구원, 「2007년 경제전망」